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2009. 1. 26 제30호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권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세계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1인가구
- II. 서울 1인가구의 네 가지 모습
- III. 급증하는 1인가구에 대비한 기본전략

요 약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고 동경의 1인가구는 45%에 육박한다.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관련해 ‘싱글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언급하였다. 서울도 지난 5년 사이 1인가구 증가율이 34%에 달해, 혼자 사는 가구가 70만에 이르는 ‘1인가구 20% 시대’에 진입하였다. 2030년 서울의 1인가구 규모는 25%로 추계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서울은 1인가구가 야기할 변화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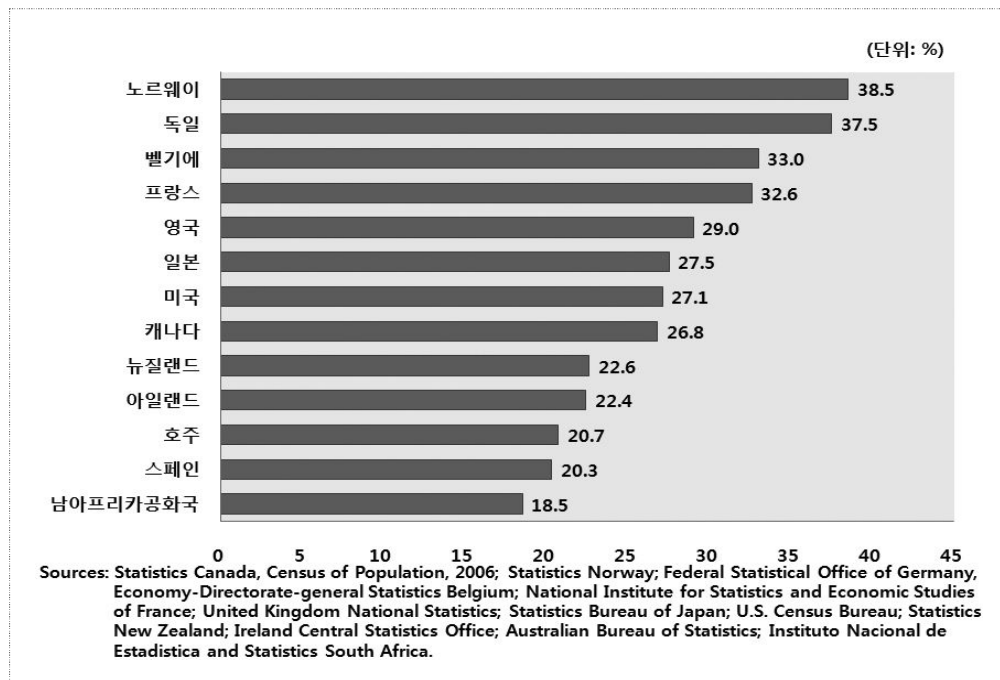
서울의 1인가구는 30세 미만 청년,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룬다. 2005년 기준 남녀 구성비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 약간 줄고 30대부터 50대까지의 장년층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1인가구는 단일한 모습이 아니다. 4種4色の 모습을 가진 서울의 1인가구는 도시의 트렌드세터로서의 골드 미스·미스터,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그룹, 해체된 가족의 결과인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사회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실버세대 그룹으로 구분된다. 골드 그룹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심의 30·40대로 도시의 새로운 가치의 담지자이자 도시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 중 전문가 계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의 성장 요인이다. 이들 집단과는 달리 서울의 1인가구 대다수는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다. 1인가구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며 취업자의 과반수가 서비스직과 판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다. 1인가구 소득분포 중 1분위 집단의 평균소득은 34만 3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골드세대처럼 시장(market)의 포섭대상이 아닌 정책대상으로서의 서울 1인가구는 ‘사회적 돌봄’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4種4色の 서울 1인가구가 야기할 변화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4種4色の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1인가구는 지하철 2호선 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가장 희망하므로 도심거주와 대중교통 지향성을 고려한 ‘싱글벨트’ 공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불안한 독신자’ 그룹에게는 생활 안전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정 재구성화를 위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중심 세력인 실버세대에게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I. 세계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1인가구

세계 도시,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

- 2006년 유럽 일부 국가의 1인가구가 40%에 근접
 - 2006년 기준 노르웨이 전체 가구의 38.5%, 독일 37.5%, 프랑스와 벨기에
는 33% 등 1인가구 형성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영국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2026년에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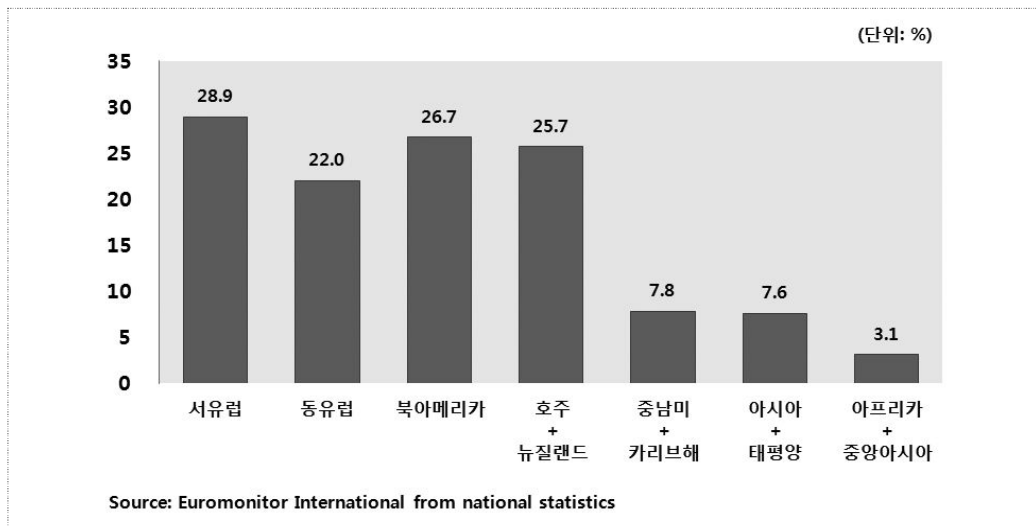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1인가구 비율(2006)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08)에서 1인가구 증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독신여성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 '싱글경제의 형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세계 지역별 1인 가구

- 서구권의 1인가구 비율은 아시아 지역에 비해 3~4배 높은 실정
 - 근대화된 지역의 공통 정서와 사회구조,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급증
 - 미주과 유럽의 1인가구는 성숙기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시아권은 최근 형성되기 시작했거나(중국) 장기적 경기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1인가구가 증가(일본)



[그림 2] 지역별 1인가구 비율(2006)

바이링(白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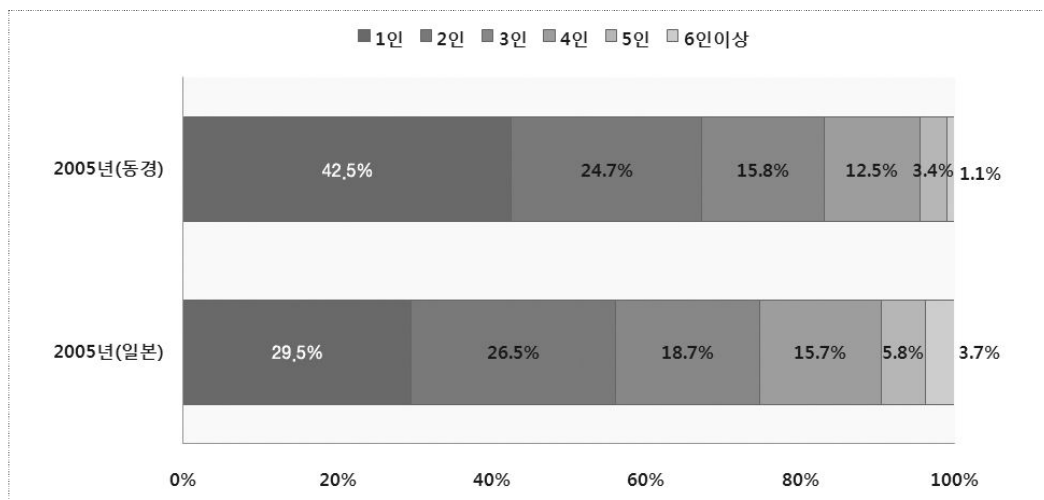
'인생을 즐기는 싱글족'이란 의미의 바이링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은 고소득 화이트칼라의 싱글을 의미함. 이들은 직업 유동성이 매우 높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임. 또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긴장감과 불안감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임.

프리터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졸업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함. '프리 아르바이트'라는 일본식 단어를 줄인 말인 '프리터족'은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 후 직업을 얻지 못한 젊은이임. 이들의 실업률은 2005년 기준 7.8%로, 전체 실업률 4.6%보다 훨씬 높음.

□ 동경의 1인 가구는 일본 전국 대비 1.4배인 42.5%

- 2005년 기준 일본 전체 1인가구(29.5%) 대비 동경 1인가구 비율은 1.4배인 42.5%
- 동경의 남성 독신자는 135만 3000명이고, 여성 독신자는 109만 1000명으로, 2000년 대비 남성 8.8%, 여성 14.8%나 증가



[그림 3] 동경의 세대인구별 구성비

□ 영국은 남성 청장년층에서 1인가구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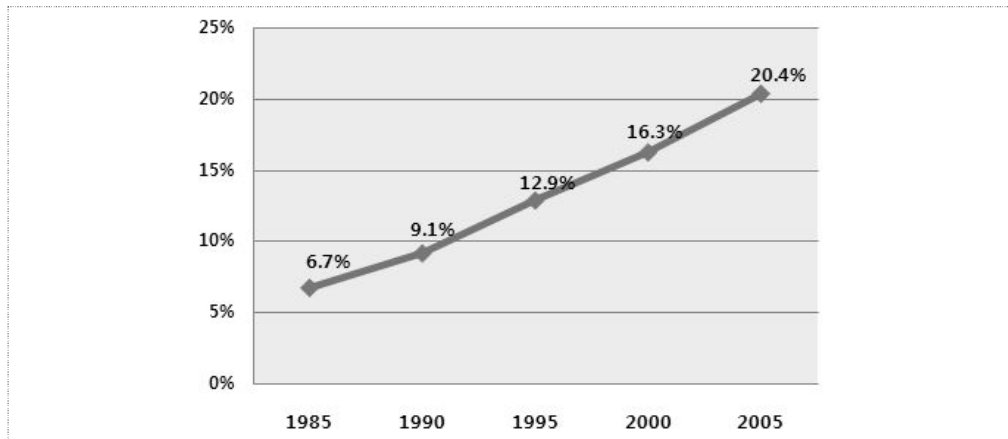
- 영국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 비중은 30%
- 1인가구 증가 원인이 젊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 특히 35~44세 미혼남성의 비율이 높은 경향

서울도 1인가구 20%대에 진입, 2030년 25%로 증가할 전망

□ 서울의 1인가구는 2000~2005년 사이 34%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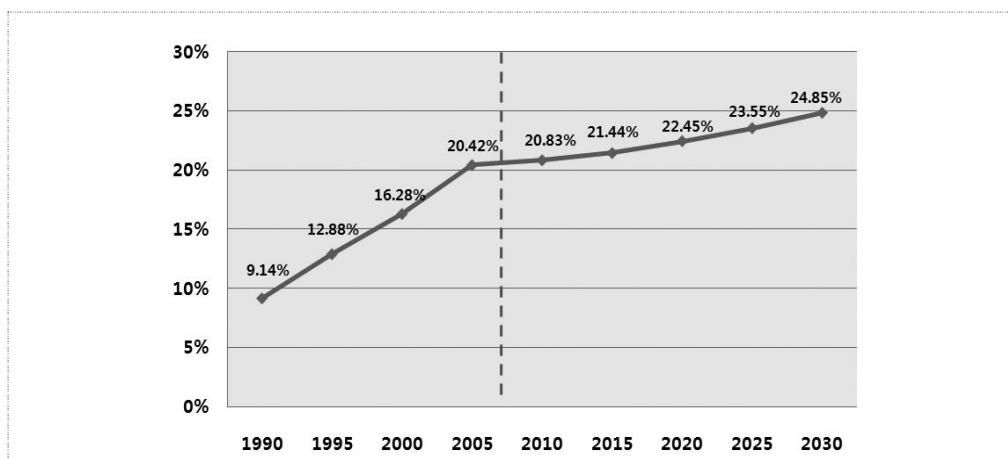
- 서울의 1인가구는 2005년 기준 675,739가구로 전체 가구의 20.4% 차지, 2000년 502,245가구에 비해 34%나 급증

- 같은 시기 서울의 전체 가구 증가율은 6%에 불과하여 1인가구 증가 현상이 현저



[그림 4] 서울의 1인가구 변화추이

-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사회 변화에 대비할 필요
 - 2030년 서울의 1인가구는 25%로 추계
 - 서울의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 시대이므로, '정상적인' 가구형태로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년까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0년 이후)

[그림 5] 서울시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 장기전망

II. 서울 1인가구의 네 가지 모습

서울의 1인가구, 4種4色の 얼굴

□ 도시의 트렌드세터인 ‘골드미스·미스터’ 그룹, 우울한 싱글 산업예비군 그룹, 해체된 가족의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사회의 중심 실버세대 그룹의 4種4色

- 1980년대 맨아기를 거친 산업예비군 그룹부터 1990년대 중반 나타나기 시작한 골드세대 등 1인가구는 유형별로 시간차를 두고 성장

<표 1> 서울 1인가구의 집단별 성장 모형

	산업예비군	골드세대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1980년대	맨아기	-	-	-
1990년대 초·중반	확대시기	형성 초기	형성 초기	-
1990년대 후반	전반적 확산	성장	점진적 확산	맨아기
2000년 이후	지역 거점 유형	사회 트렌드화	성장	본격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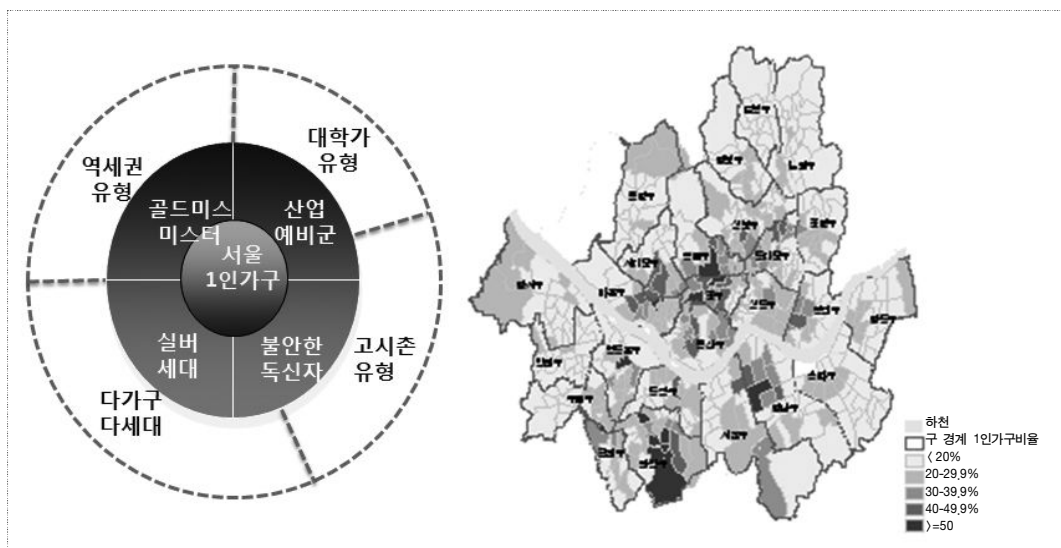
□ 4種4色の 1인가구는 상이한 모습

- ‘골드미스·미스터’ 그룹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심의 3·40대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도시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시장(market)의 포섭’ 대상
- 지난 10년 동안(2005년 기준) 1인가구 중 전문가 집단이 2배 이상 성장 (7.4% -> 15.9%), 사무직은 15.8%(1995년)에서 20.6%(2005년)로 증가
- 개인주의 삶과 사회적 성취,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관 등 사회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 성장의 요인

-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산업예비군, 가족해체, 중장년층 실업 요인의 중첩으로 형성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화 산물인 실버세대는 '사회적 돌봄'의 대상
-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30대 후반, 40~50대에 광범위하게 분포
- 이혼율의 상승, 기러기 가족, 중년층 실업 문제가 중첩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은 사회적 부유(浮遊)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농후

□ 1인가구는 주로 도심지역 및 부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분포

- 종로, 을지로, 회현동 중심의 도심 유형, 대학가 유형인 연희동, 신림9동 중심의 고시촌 유형, 역삼동, 논현동 중심의 역세권 유형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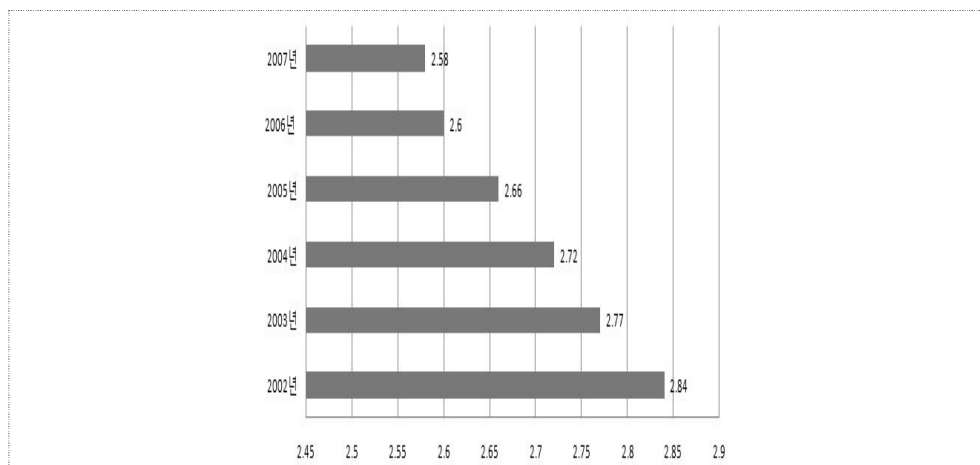


[그림 6] 4種4色 1인가구와 공간분포

전통적 가족중심 구조의 해체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족관,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2002년 2.84명 → 2007년 2.58명)
- 혼자 사는 여성들의 41.4%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25.5%
- 경제 불황기에는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1인가구들이 가족들과 살림을 합치는 '역분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는 가족 결합력의 약화와 개인 가치관의 변화로 1인가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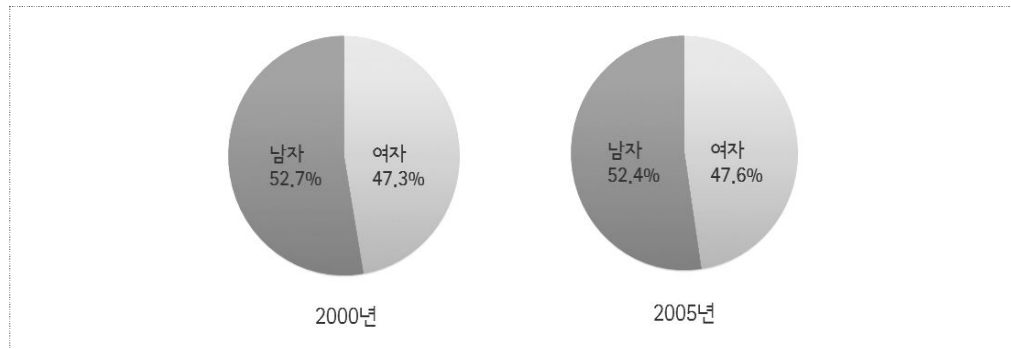
[그림 7] 가구당 인구

<표 2>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인가구를 형성한 비율

전체		32.4%
성별	남자	25.5%
	여자	41.4%
학력	고졸 이하	38.2%
	대재 이상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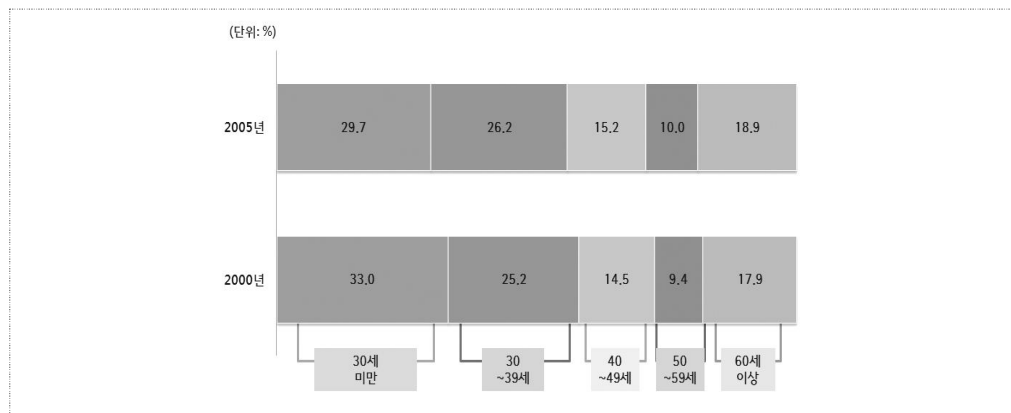
□ 서울의 1인가구는 30세 미만 청년과 30~50세의 중장년층이 주류

- 2005년 기준 지난 5년 동안 서울 1인가구 남녀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줄고 30대~50대의 장년층은 증가



자료: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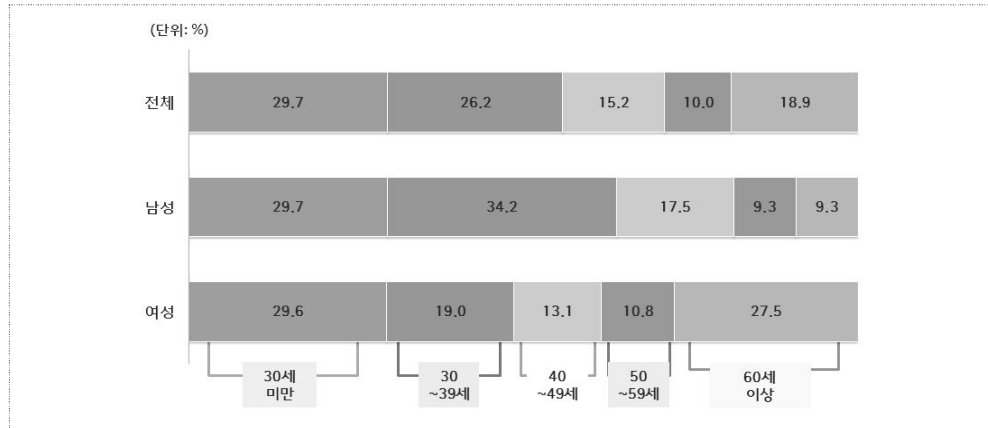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변화(2000년, 2005년)



자료: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9]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 남성 1인가구는 30대가 34%로 가장 많음. 여성 1인가구의 30대 비중은 19%에 불과
-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짐
 - 여성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남성은 9%에 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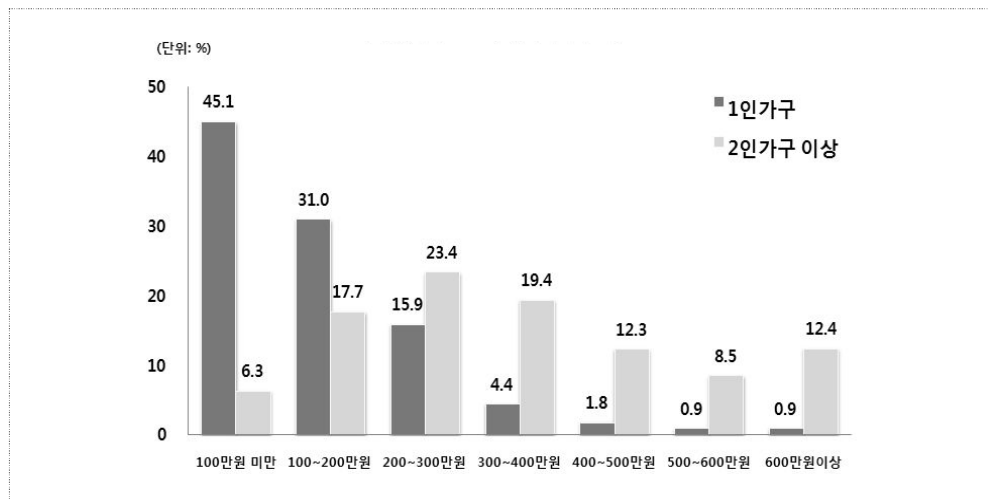
자료: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0]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2005년)

화려한 소수에 가려진 다수의 빈곤층

□ 1인가구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 1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45%, 100~200만원 소득층은 31%로 1인가구 전체의 76%가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그림 11] 월평균 소득수준별 비교

- 1인가구 분위집단별 평균소득은 다인가구의 평균소득의 30% 내외로 열악
- 1분위 집단의 소득평균은 34만 3000원 다인가구 1분위 소득평균의 30%에 불과
- 반면, 5분위 집단의 소득평균은 1인가구가 354만 7000원으로 다인가구의 50%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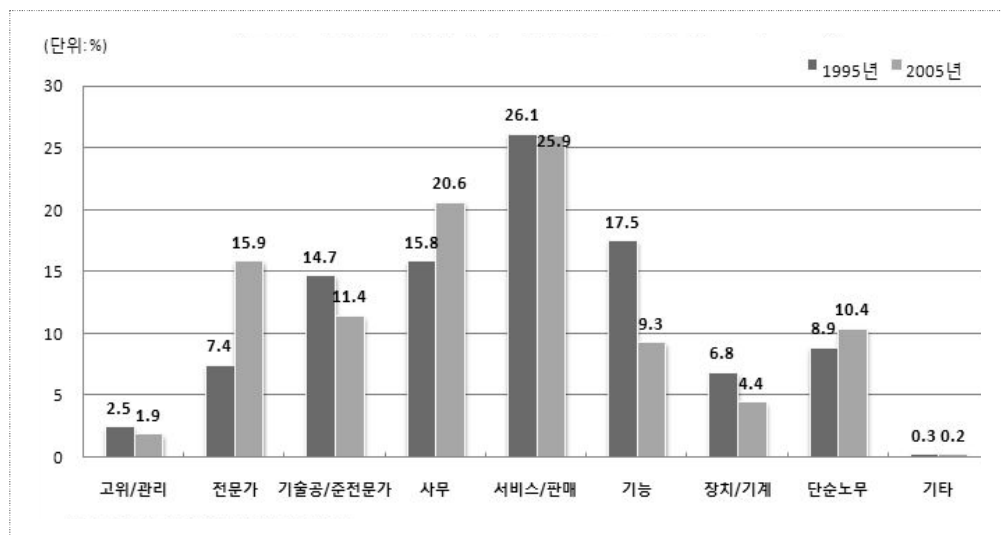
<표 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5분위 집단별 평균소득 비교

(단위: 원)

소득평균	1분위집단 0~20%	2분위집단 20~40%	3분위집단 40~60%	4분위집단 60~80%	5분위집단 80~100%
1인가구	343,291	654,948	1,046,187	1,646,916	3,547,229
다인가구	1,153,307	2,265,713	3,131,220	4,206,642	7,086,639
1인가구/다인가구 평균소득 비중	29.7%	28.9%	33.4%	39.2%	50%

□ 과반수가 서비스, 판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

- 판매서비스직 26%, 단순노무 10%, 기능 9%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 5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그림 12] 서울시 1인가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변화(1995. 2005)

III. 급증하는 1인가구에 대비한 기본전략

4種4色의 상이한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1인가구 정책을 개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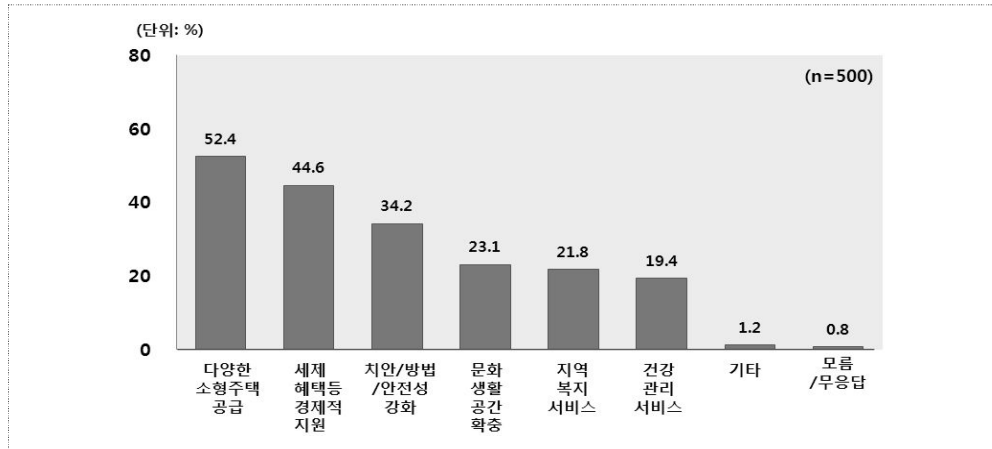
- 4種4色의 1인가구는 가치관,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영향 등이 상이한 가운데, 정책의 무게중심은 '빈곤 해소', '해체된 가정 복원' 등 사회안전망의 확장
-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불안한 독신자를 위한 가족 재구성화 지원 전략, 빈곤한 실버세대를 위한 경제, 정서적 지원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골드세대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마련할 필요

<표 4> 서울 1인가구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책 수요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가치관	•개인주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	•3D 업종 기피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의 가치 담지자	•가족가치 약화	•대가족제 약화
경제환경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청년실업	•중장년 실업	•낮은 경제능력
사회문화적 환경	•가부장적 가치의 완화 •긍정적 싱글이미지	•사회 浮遊층화 가능성	•기러기가족 •이혼율 증가	•고령화사회의 중심세력
정책수요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한 공간 계획	•일자리 창출	•가족재구성화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지하철 2호선 축 중심의 '싱글벨트' 를 고려한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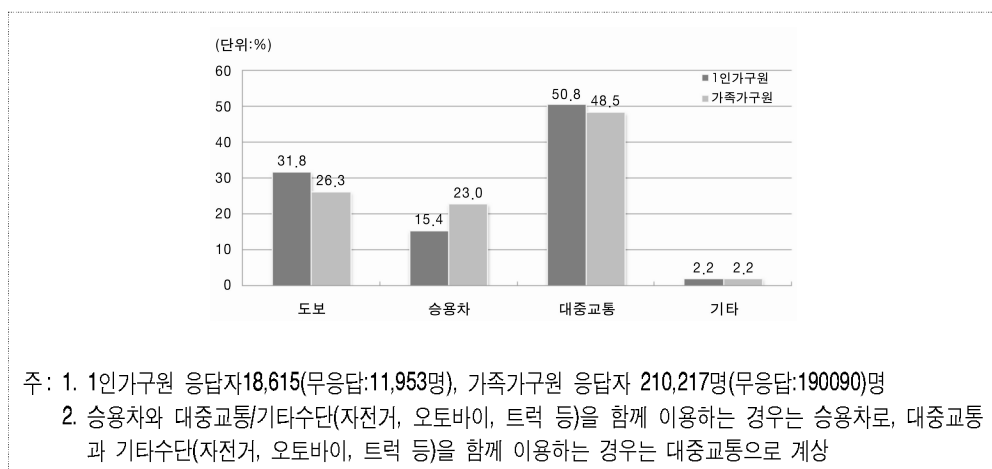
-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가장 희망
- 1인가구의 52%는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45%는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을 가장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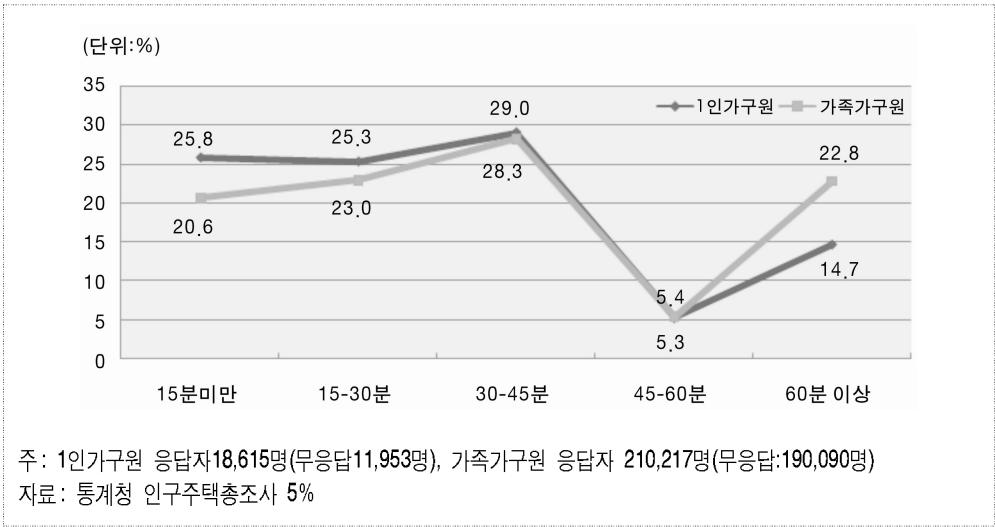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시가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중복응답)

□ 승용차 의존도가 낮은 직주근접을 선호

- 1인가구는 대중교통 51%, 도보 32%로, 승용차 15%로 다인가구에 비해 자동차 이용도가 낮은 경향
-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은 30분 이내가 51% 이상을 차지, 1시간 이상 소요시간 비율은 15%로 가족가구의 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가족가구에 비해 거주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의 제약이 적어 직주근접 경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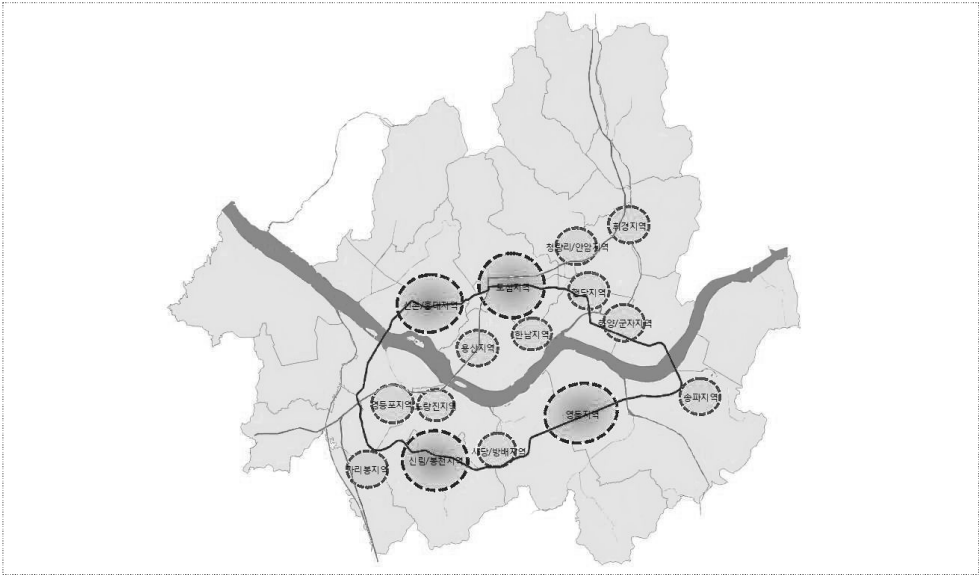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시 교통수단



[그림 15]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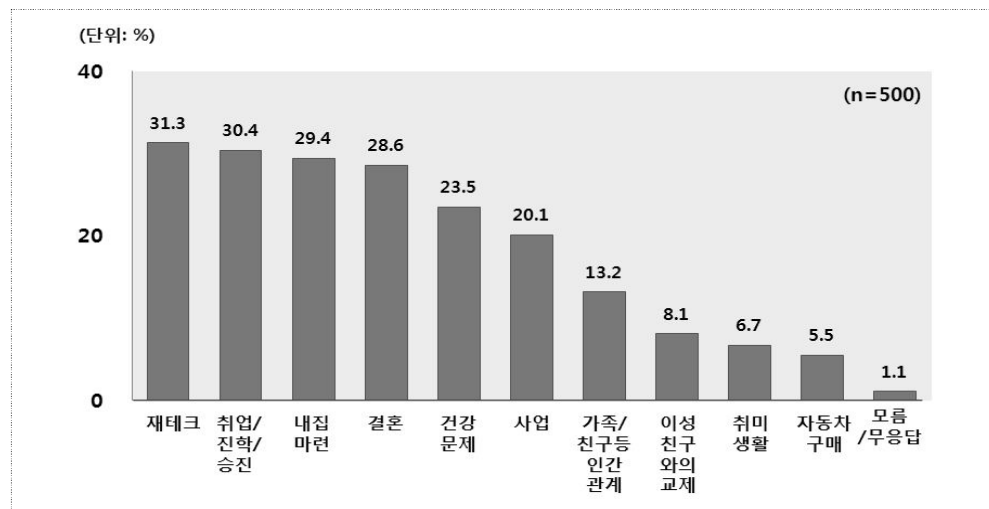
- 도심 거주와 대중교통 지향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공간 계획이 필요
- 현재 1인가구는 지하철 2호선을 근간으로 밀집분포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주택과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싱글 벨트' 계획 방안을 마련
 - 1인가구의 경제능력과 이동성이 강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그림 16] 서울시 1인가구의 2호선 축 중심의 '싱글벨트' 형성도

경제적 약자인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

- 20대 청년실업자 중심의 산업예비군 집단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 취약 계층
-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재테크, 취업 등 경제적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형 일자리 창출



[그림 17] 주요 관심사(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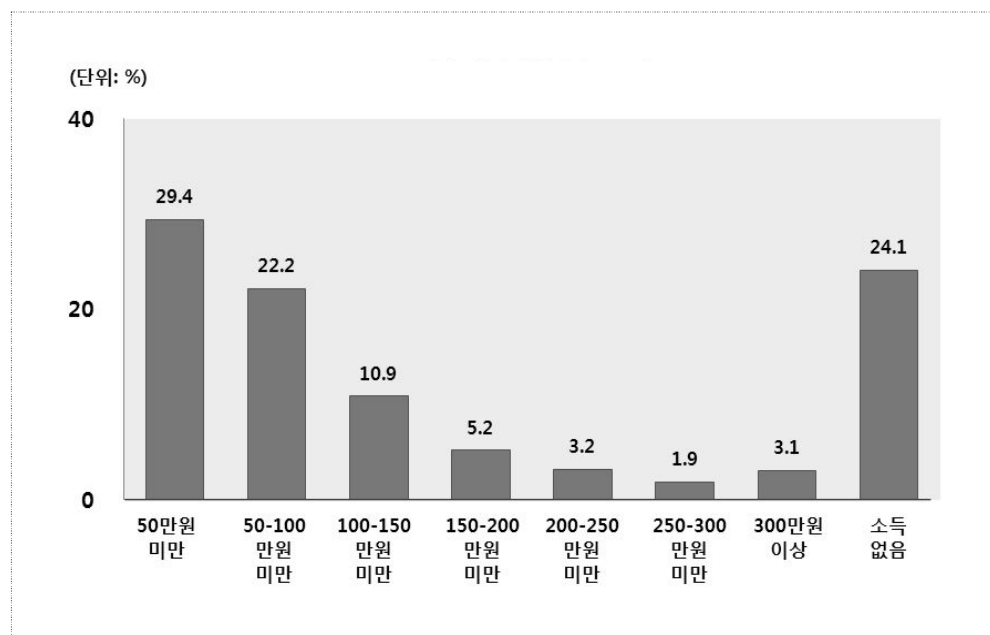
‘불안한 독신자’ 그룹을 위한 가정 재구성화 지원 방안 모색

- 불안한 독신자 그룹의 생활 안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역 복지서비스 차원의 저렴한 가사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의 정책 개발 필요
- 30대 후반, 40대 중심의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이혼, 기러기 가족 등 가족 해체로 인해 형성
- 혼자 사는 기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중

- 이혼, 별거 상태의 40대 중년층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실정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

- 혼자 사는 실버세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소외감 예방을 위한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
-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세대의 사회 준비는 취약
- 65세 이상 노인 중 24%는 소득이 없으며,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29%로 전체 노인 10명 중 5~6명이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의 소득자



[그림 18] 노인의 월평균 소득

- 실버세대 중 정기적으로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모임이 없는 비율은 52%에 이르며, 2005년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의 자살 사망률이 10년 전 대비 3배 이상이나 증가

-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웃 만들기, 상담 서비스 등 사회적 통합 서비스가 필요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303

miree21@sdi.re.kr

신상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93

syshin@sdi.re.kr

조권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6

kjchoh@sdi.re.kr